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급성기 뇌졸중, 골든타임 이내 신속하게 치료 잘하는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7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총 246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진료과정 지표조사에서 △금연교육 실시율 △뇌 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지질검사 실시율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투여 고려율 △항혈전제 퇴원 처방률 등의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또한, 전체 평균 91.55점을 훨씬 웃도는 99.69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1등급을 획득했으며,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A등급 기관으로 분류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평가로 뇌졸중 치료체계에 있어 시설, 전문 인력 등 운영 면에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우수 병원임을 입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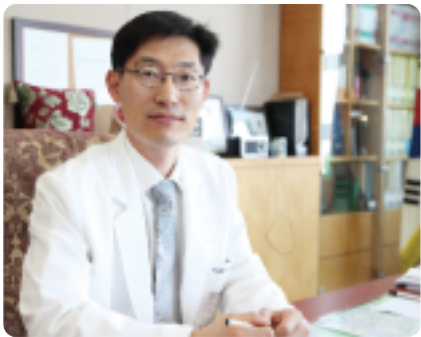
조기난소부전 예방을 위한 오수유 추출물에 관한 특허 획득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최근 조기난소부전 예방을 위한 난독성 보호 활성을 갖는 오수유 추출물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공식 특허명은 ‘난독성 보호 활성을 갖는 오수유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기난소부전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이며,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여성 의학과 김동일 교수와 동국대 한의과대학 이주희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이번 연구를 통해 오수유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인체내부에서 산화작용을 하는 자유기를 제거하는 활성을 증가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방여성 의학과 김동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상 적용 사례로 난임의 치료와 예방 갱년기장애 예방, 조기폐경 예방, 생식기능 조기 감퇴 예방 및 치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갱년기장애, 조기폐경, 난임 등 질환의 일반 임상에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신약과 건강식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주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최근 국내를 비롯해 유럽지역과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유럽지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에서도 38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두 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에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 예방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귀가 후 7 일~21일 사이에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여 의료기관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므로 반드시 준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강화도 전등사 이주민 축제 무료진료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최근 강화도 전등사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이주민 문화 축제에 참석해 한방 의료지원을 펼쳤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매년 이주민 문화축제에 참여해 의료 혜택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진료상담부터 침 치료, 투약, 혈압, 당뇨 측정 등의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의료지원에는 김동일 한방병원장을 비롯해 간호사 2명과 행정 직원 2명이 참여했으며, 총 100여 명의 이주민에게 한방무료진료를 제공했다. 또한 ‘아시아는 친구’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과 민속춤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띄웠으며 연꽃 만들기, 한국 전통혼례복 입기, 고향에 엽서 보내기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이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